



OC교협 임원들이 기자회견에서 한 해 사역 계획을 발표했다. 왼쪽에서 네 번째가 이서 회장.

본질로 돌아가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협

OC교협, 작은 교회 섬기기 위한 다양한 사업 발표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가 1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서 회장(미주비전교회 담임)은 “행사가 아닌 본질로 돌아가 교회가 연합해 기도하며 선교하는 교협이 되길 원한다”고 전했다.

2018년 OC교협은 OC 지역 기관장 초청 조찬기도회, 삼일절 평화통일 기도회, 부활절 연합예배, 사모 블레싱 나잇, 목회자 영적 대각성 집회, 작은 교회 목회자 초청 포럼 등을 예정하고 있다.

이중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작은 교회 목회자 초청 포럼이다. 이서 회장은 “자기 목회가 바쁘고 힘든 이민 목회자들이 다른 교회와의 연합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교협 역시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하면 외면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올해 OC교협은 중견 목회자와 젊은 목회자 간의 1대1 멘토링, 목회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럼을 연다. 교협이 개교회의 목회를 돕는 곳이 되면 자연스럽게 목회자들이 참여할 것이라

예측이다. 또 두 차례에 걸쳐 새로운 회원을 초청하는 행사를 열어서 OC교협을 소개하고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히 올해 OC교협은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동안 실버 세대 전문인 선교사 파송 및 중소형 교회의 선교적 교회화를 주도해 온 SON 미니스트리 및 GMAN과 함께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단체 대표 김정환 선교사는 “제 조사에 따르면, 작은 교회들도 선교하고자 하는 열정과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리소스가 부족하다. OC교협이 작은 교회들이 연합

해 선교하고 단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전했다. 이를 위해 OC교협은 선교 부흥회 및 세미나부터 실제 연합 단기 선교까지 계획하고 있다.

OC교협은 2월 10일 열리는 기관장 조찬기도회에 OC 지역 목회자와 교계 지도자는 물론 남가주 지역의 한인 정치인들, 이 지역 한인 교단 관계자들, 타 지역 교회 연합단체장들까지 모두 초청할 계획이다. 이서 회장은 “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도전을 주며 충격을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OC교협 수석부회장은 여전히 공식인 상태다. 김준형 기자

나이스크 운동 25주년 맞이해

예배 회복을 추구하는 나이스크(NYSKC) 운동이 창립 25주년을 맞이해 LA에서 감사예배를 드린다. 최고선 목사가 시작한 이 운동은 25년 만에 북미주 전역과 대한민국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

감사예배는 한인타운 인근에 위

치한 평화교회(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에서 2월 1일 오후 7시에 드린다. 나이스크 측은 “모든 사역과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213-251-9191



나성한인교회가 창립 42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특별한 교회 되기보단 복음에 충실한 교회 될 것

창립 42주년 맞은 나성한인교회

1세와 2세 연합해 지역사회와 커뮤니티 섬겨

나성한인교회(신동철 담임목사)가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렸다.

21일 주일 오전 11시 교회 본당에서 드린 이날 예배는 1세(KM)와 2세(EM)가 연합해 드려졌다.

신동철 담임목사는 “지난 42주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면서 “1세와 2세, 타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1세와 2세가 연합해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습이 너무 감격적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별한 교회가 되기보단 진실된 교회, 참된 교회, 복음에 충실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면서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영적으로 방향하는 영혼들을 깨우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교회 창립 42주년 예배는 조셉 김 목사의 인도로 회생식 장로의 대표기도 후 사도행전 2장 42~47절을 본문으로 “이런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조셉 김 교육부 목사,

샘 고 EM 목사(힐사이드교회), 신동철 담임목사가 차례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10주년 간 사역한 유영상 장로가 은퇴하고 증경장로로 추대됐다. 모든 예배는 신동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나성한인교회의 2세 교회인 힐사이드교회 샘 고 목사는 이날 가진 짧은 인터뷰에서 “우리 교회의 이슈는 홈리스 선교에 있다”고 강조했다.

고 목사는 “우리 교회는 한인이 거의 없는 엘 세레노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서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해야 한다”면서 “지난 5년간 홈리스를 위한 선교가 열매를 맺고 있다”며 말했다.

그는 “한 홈리스는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이 깨어졌지만 교회의 섬김과 기도로 지금은 홈리스를 섬기는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1세 교회와 성도들도 홈리스 문제와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운동이 한인교회 전역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 (562) 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전기계통
 ■ Tune-Ups ■ 10K Service
 ■ Computer Diagnostic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5-3180

교회창립 50주년 희년 맞이

정태기 목사 초청 다시찾기 세미나

고달픈 이민생활에 지쳐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기 세미나'를 통해 발견해보세요. 남가주에 계신 이웃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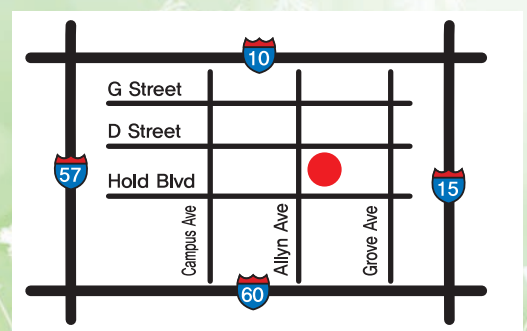
한국 치유상담의 초석
정태기

■ **강사** : 정태기 목사 (한신대학교 명예교수/크리스찬 치유상담 대학원대학교 총장)

■ **일시** : 1월 27일(토) ~ 29일(월)

■ **시간** : 27일(토) 오후 7:30 (첫째 날 : 하나님 다시 찾기 / 이사야 35:5~6)
 28일(주일) 오전 8:00 / 11:00 예배 (제목 : 내가 가진 보화 / 마태복음 13:44)
 28일(주일) 오후 3:00 (둘째 날 : 가족 다시 찾기 / 시편 112:1~3)
 29일(월) 저녁 7:30 (셋째 날 : 외로움의 치유자 / 누가복음 19:1~10)

■ **장소** : 갯스윌 연합교회(담임목사 이희철)
 904 East D St, Ontario, CA 91764
 www.gwachurch.org Tel. (909)983-0994



904 E. D Street Ontario, CA 91764

• 시론

원어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며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한 분이 이 사야 41장 10절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올렸다. 이 구절 후반부를 모든 영 어성경에는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와 같이 미래 시제로 번역하고 있고, 한글 개정개역에서는 “내가 너를 굳세 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 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로 번역하여 시제보 다는 화자의 의지가 반영된 표현(이 를 구분론에서는 modality라 한다) 을 사용하고 있다. 글쓴이의 주장은 이 본문의 히브리어 동사가 완료형 (qatal형)이므로 과거 시제로 번역 되어야 맞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 면 “I strengthened you and helped you; I upheld you with my righ- teous right hand.”와 같이 번역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 라엘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능력 을 바탕으로 “나는 너와 함께 한 너 의 하나님이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럴 수 있는 해석이 다. 하지만 글쓴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다. 글쓴이는 기독교 가 이 본문을 미래로 해석하면서 유 대교가 과거로 해석한 것을 빼앗았 다고 주장하며 기독교가 본인들의 신학을 근거로 유대교가 해석한 방 식을 바꾸었다고 했다.



박성진 교수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아시아부 학장 / 구약학 교수

표현되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이를 수사적 완료(rhetorical perfect) 또는 예언적 완료(prophetic perfect) 라고 부른다.

둘째, 그렇다면 이사야서 41장 10 절의 완료형은 수사적 완료형인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살펴 보기 위해서는 문맥을 살펴봐야 한 다. 41장 13절을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네 오른손을 붙들 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라는 표현으로 10절과 비슷한 표현 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0 절과 13절은 수미쌍관의 구조를 갖 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10절과 13 절을 하나의 문학구조적 단위로 보 고 이 단위에 나오는 히브리어 동사 를 살펴야 한다. 11절과 12절에 나 오는 일곱 개의 히브리어 동사는 모 두 미완료형으로 미래 시제나 양태 적(modal) 표현을 말하고 있다. 그 도 그럴 것이 이 본문은 예언적 성 격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완료형은 수사적 완료가 분명하다.

셋째, 글쓴이는 유대인들은 이 본 문을 과거로 해석했다고 했다. 하지 만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 먼저 유 대인들이 가장 권위 있게 받아들이 는 Jewish Publication Society의 번 역에 의하면, 10절은 “I strengthen thee, yea, I help thee; Yea, I uphold thee with My victorious right hand”로, 11절은 “Behold, all they that were incensed against thee Shall be ashamed and confound- ed; They that strove with thee Shall be as nothing, and shall per- ish.”로 화자의 의지와 뜻이 반영된 양태적(modality) 표현으로 개정개 역의 번역과 매우 흡사하다. 칠십인 역(LXX)에는 이 헬리어 동사들이

부정과거형(aorist)로 나오는데, 미 래적 부정과거형(Futuristic Aorist 또는 Proleptic Aorist) 용법으로 히 브리어에서는 수사적 완료와 비슷 한 의미의 범주를 보여준다.

넷째,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 동사 에 시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모든 언 어에서 동사는 시제만을 보여주지 않고 시제(Tense)-양태(Mood)-상 (Aspect)을 함께 보여준다. 이를 TMA 구조라 한다. 예를 들면, ‘그가 물에 빠졌다’와 ‘그가 익사했다’라는 두 문장을 본다면, 둘 다 과거 시제 를 사용했지만 첫 번째 문장은 과거 에 물에 빠진 상태를 표현할 뿐, 지 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 정 보를 주지 않지만 두 번째 문장은 과 거에 물에 빠져 현재는 이미 죽은 상 태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익사하 다’란 동사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상(aspect)에 의해 결정된다. 히브리 동사형도 완료형이나 미완료형이나 에 따라 시제가 결정되지 않고 TMA 와 주변 문학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다섯째, 그럼,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복잡한 내용을 다 이해해야만 구약 석의가 가능한 말인가? 간단 하게 대답하면 “그렇다.” 사실 영어 의 동사는 더 복잡하다. 9개의 형태 로 현재, 과거, 미래 시제에 완료형 과 진행형(현재 완료, 현재 진행 등) 을 표현하고 있고 많은 조동사를 통 해 양태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히 브리어 동사는 완료형(qatal), 미완 료형(yiqtol), waw 연속형(weqatal & wayiqtol)의 네 가지 형태로 언어 의 복잡함을 표현하기에 한 가지 형 태가 다양한 TMA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잘 알면 구약 석의의 중요 한 열쇠를 갖게 되는 것이다.

여섯째, 이사야서 41장 10절 후반 부가 미래 시제가 아닌 과거 시제라 고 주장함을 통해 기독교가 본인들 의 신학에 따라 유대인의 해석을 바 꾸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해 석이다. 물론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 신학 개념을 받아들여 기독교화한 흔 적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 다. 예를 들면, 선민 사상인데, 유대 인 정체성의 핵심인 선민 사상을 바 율은 로마서 11장에서 예수님을 믿 는 우리들이 참감람나무고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기독교화하는



미국 내 유일한 한국어 위탁가정 에이전시인 한인가정상담소의 교육 모습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세요 한국어와 영어로 위탁가정 오리엔테이션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 가 2018년 새해를 맞아 위탁아동들 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동지찾 기’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이 번 오리엔테이션은 오는 2월 3일 토 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가정상담소 (3727 W. 6th St. #320 Los Angeles) 에서 열린다. 한국어 강의와 영어 강 의가 2개의 강의실에서 각각 열리기 때문에 참석자는 원하는 언어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오리엔테이션 참석은 무료이며, 위탁가정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자격 조건과 필요한 교육과정, 정부 지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참석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위탁 가정이 되기 위한 20시간 교육을 받 기 위해서는 이 수료증이 반드시 필 요하다.

위탁가정이 되려면 25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지문검사(Live Scan)를 통 한 신원 조사를 받아야 한다. 오리엔 테이션과 20시간 교육과정을 마치 면 소셜워커의 가정방문, 인터뷰 등

을 거쳐 위탁부모가 될 수 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위탁자 녀를 돌보고 있는 부부가 강사로 참 석, 위탁가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위탁가정이 되 기까지의 과정과 위탁부모의 경험, 위탁자녀들을 돌보면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다.

LA 카운티에는 평균 3만5000명 의 아이들이 친부모와 살 수 없어 아동보호국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중 아시안은 680여 명, 한국계는 60~1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예상 한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2014년 위탁가정 프로그램인 ‘동지찾기’를 처음 시작했으며, 현재 34가정이 위 탁가정 자격을 갖췄다. 이 가정들은 한인인 물론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 리를 제공했으며, 12명의 아이는 입 양됐다.

이 행사는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 므로 참석을 원하면 예약해야 한다. 문의) 213-235-4843

장면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초기 기 독교 역사에서 유대교와 기독교 간 의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선민 사 상도 그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사 야서 41장 10절에서는 시제가 바뀐 다고 어떤 신학적 논쟁의 핵심이 바 꾸어지는 의문이다.

필자가 이렇게 석의에 대한 논의 를 한 이유는 목회자들에게 바른 석 의를 위한 원어 교육이 얼마나 중 요한가를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본인이 재직하 고 있는 신학교에서는 바른 석의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보게 되는 계

기가 되었다. 완료형은 과거 시제란 식으로 암기하는 정도의 원어 교육 에서 본문의 문맥을 함께 고려하여 통합적인 결론에 이르는 석의 교육 의 자리까지 나아가야함을 이번 페 이스북의 글을 통해 다시금 절실하 게 느낀다.

페이스북의 글쓴이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본문 해석을 본인의 상상력과 결부시켜 책으로 출판할 예정이라고 한다. 충실한 석의에 근 거를 둔 상상력을 출판하는 것은 언 제나 환영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상력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 이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월드미션대학교 수료증 과정

2월 12일부터
매주 월요일
12주 코스

WMU 상담교실 II

“성경적 돌봄과 상담 기술”

현실적인 문제와 갈등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People Helper의 역할과 기독교 공동체 내 자원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상담 워크숍입니다.

Kim, Hyun Kyung
월드미션대학교 기독교상담학 교수 / 워싱턴 지역 ANC 은무리교회 내직직무 사역자 (상담 사역자) Talbot 기독교 교육학 박사 (Ph.D.) Talbot 목회 상담학 석사 (M.A.)

2018. 2. 12부터 | 매주 월요일 | 10:00 am - 12: 30 pm | 608호 강의실 | 등록비 \$100

2월 5일부터
매주 월요일
10주 코스

WMU 바이블 아카데미

“기초 성경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직접 읽고 싶은 평신도, 신학생, 목회자를 대상으로 히브리어의 핵심문리와 맥을 잡아 드림으로써, 히브리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Nam, Jong Sung
월드미션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교수 / 디렉터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신약학 박사 (Ph.D.)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약학 석사 (Th.M.) 서울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M.Div.)

2018. 2. 5부터 | 매주 월요일 | 10:00 am - 12:00 pm | 501호 강의실 | 등록비: \$100

WORLD MISSION UNIVERSITY |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 WMU 수료증 취득 및 월드미션대학교 진학 시 학점 인정 | **1.213.388.1000**

“아하! 성경이 이런 책이었구나”

김권수 목사 성경 세미나 열린다



김권수 목사

매년 초 모든 성도들이 결심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성경 일독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 일독에 성공하는 성도는 몇 명이나 될까? 성경 일독이 어려운 이유는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지루해서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성경을 드라마 보듯이 읽을 수 있다면 어떨까?

김권수 목사의 성경 통독 세미나가 남가주 일대에서 또 한 차례 열린다.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한 눈에 꿰뚫게 해 주는 이 세미나는 벌써 17회를 맞이한다. 세미나에 참석하면 5시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주요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성경 66권 각 권이 갖고 있는 주요 메시지와 그 메시지가 전체 성경에서 갖고 있는 의미를 설명해 주며 전후 맥락과 시대 상황까지 배운다. 따라서 세미나 후에는 마치 성경의 큰 숲을 보고 나온 것과 같다. 이제 큰 숲을 봤다면 그 숲

에 들어가 직접 숲을 즐기는 것은 개개인의 몫이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숲을 즐기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다.

김권수 목사는 50세가 다 되어 신학을 공부하고 53세에 안수를 받은 늦깎이 목사다. 그 전에는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해 소위 ‘엄청 잘 나가는’ 사업가였다. ANC은누리교회 안수집사 시절에도 신앙에 열심이었던 그는 성경이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입학했고 안수 받은 후에는 그 잘 나가던 사업을 접어버렸다. 그리고 성경 연구에만 몰두해 지금도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정도로 끊임 없이 연구 중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남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 주는 ‘선생’이 되기 위해 그는 수년에 걸쳐 성경의 전체적인 모습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30독을 해도 안 보이던 성경이었는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먼저 본 후 각 권으로 들어가자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대한 대하 드라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세부적인 내용에 집중하다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니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때부터 ANC은누리교회에서 매주일 성경 공부를 인도하며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리고 싶어 대외적인 세미나를 시작했

다. 지금까지 16회, 총 1,500명이 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평신도들은 물론 목회자들조차도 “세미나를 듣고 나니 성경을 일독한 기분,” “유대 역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명강의,” “감사의 열정이 너무 좋다,” “그동안 퍼즐 같던 성경의 전체 그림을 보게 됐다”는 칭찬을 했다. 평신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김 목사는 지금까지 세미나를 인도한 경험과 노하우, 리소스를 모아 책 출판을 준비 중이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역사 가운데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다면 5시간을 투자해 성경을 재미있고, 즐겁게 읽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것”이라고 추천했다.

이번 성경 통독 세미나는 2월 10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남가주빌라델비아교회(214 N. Highland Ave. Fullerton, CA 92832), 17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ANC은누리교회(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2월 24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LA비전교회(520 S. Lafayette Park Pl. Los Angeles, CA 90057)에서 각각 열린다. 회비는 20달러이며 교재와 점심, 간식이 포함돼 있다. 문의) 818-402-3391



국가기도운동 LA 지부가 창립됐다.

국가기도운동 LA 지부 창립돼 매 주일 오후 함께 기도할 예정

국가를 위해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하는 국가기도운동의 LA 지부가 지난 1월 22일 산소망교회(담임 정연준 목사)에서 창립됐다.

국가기도운동은 2004년 스위스에서 한스 피터 뉴에시에 의해 시작됐다. 1년 동안 전국 곳곳에서 국가를 위해 기도하던 기도자들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연합 기도하는 운동이다. 한국에서는 서울신학대학교의 조갑진 교수가 2014년 5월 창립해 현재 한국 총재로 섬기고 있다.

LA 지부 창립예배에서는 흥용표 목사(국가기도운동 LA 조직위원

장)가 사회를 맡았으며 조갑진 교수가 설교했다. 김광석 목사(세계 예수교장로회 총회장)와 이순희 목사(한국 백송교회)가 축사를 전했고 조은아 목사(산소망교회)가 봉헌기도를 했다.

한국 국가기도운동은 현재 교회를 위해, 신학교 및 기독교 교육 기관을 위해, 국군 장병을 위해, 국가 리더십을 위해, 북한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LA 지부에서는 매 주 주일 오후에 한 자리에 모여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예정이며 샌디에고와 샌프란시스코에도 지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8 세계교육선교대회 열린다 2월 1일 풀러신학교와 나성영락교회에서

오는 2월 1일 ‘2018 세계교육선교대회’가 풀러신학교와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린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풀러신학교에서 각종 세미나와 강의가 이어지고 오후 7시에는 나성영락교회에서 대형집회가 예정돼 있다.

미주에 있는 교육 선교 자원을 개발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는 임현수 목사(큰빛교회),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박헌성 목사(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 김남수 목사(프라이미스교회), 안건상 교수, 박기호 교수, 김창환 교수(풀러신학교) 등이 강의를 맡는다. 또 학술 컨퍼런스, 선교지 학교 소개 시간도 있다. 실제로 선교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권오문 총장(몽골국제대학교), 구경희

총장(캄보디아 라이프대학교)도 참석해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대회를 주최하는 PAUA(Pan Asia Africa & America Universities Association, 범아시아-아프리카-아메리카대학협의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세계 44개 기독교 대학과 810개 초중고등학교를 섬길 기독교 교육 선교사들이 동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교육 선교에 관심있는 사람, 해외 선교지 학교에서 봉사할 비전이 있는 교수, 교사, 의료 관계자, 행정가, 청년 사역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 및 지도자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www.paua.kr로 접속해서 참가를 신청하면 된다. 전화 문의는 213-675-6493으로 하면 된다.



과거 워싱턴대학교에서 열렸던 세미나 모습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일 해결을 한 달에 남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철리 정

현대 HYUNDAI

철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현수막, 미디어벽

Easter SUNDAY 예수, 부활하셨네
여름성경학교 Vacation Bible School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50>

선교사 자녀들을 기억하고 응원하라 (1)

선교사 자녀들을 미주에서는 MK(Missionary Kids)라 부른다. 필자는 MK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많은 편이다.

2007년 4월 터키 말라티아에서 발생한 틸만 선교사의 순교 사건으로 그 지역에 교회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질 줄 알았겠지만 아니다. 교회는 더 세워졌고 더 많은 사역자들이 그 지역으로 모였다. 그리고 실로 감사 감격스런 일은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틸만의 아들 루카스가 현재 아버지가 졸업했던 독일 신학교에서 아버지 뒤를 이어 선교사가 되기 위한 신학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순교 사건 이후 3년만에 말라티아 교회를 방문했다. 틸만의 아내인 수산나 선교사와 루카스, 그리고 미국 WEC선교회 소속 선교사 가정들이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있었다. 그 이후 현재는 더 많은 사역자들이 배출되었고 올해는 말라티아의 다른 곳에 새로운 교회를 세울 예정이다.

루카스는 신학을 공부한 후, 말라티아에서 선교를 이어 갈 것이다. 어머니 수산나 선교사 역시 그곳에 정착하여 틸만 선교사가 남기고 간 선교의 유업들을 이어갈 것이다. 루카스는 말라티아의 선교사 2세대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것이다.

선교사들이 선교를 결정할 때 가장 어려운 일이 자녀들과의 헤어짐이다. 환경이 열악하고 학교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선교지로 향할 때 중등학교 자녀들은 같이 가자니 학교 교육이 문제고 헤어지자니 차마 어린 것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인데 용기가 서지 않아 많은 선교사 후보들이 주저 앉고 만다. 그렇게 한다고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필자가 지난 20년간 후원을 했던 멕시코 멕시코칼리의 L 선교사는 20년 전 선교 개척을 떠나면서 미국쪽 국경도시 외곽에 허름한 2 베드룸 아파트를 구하고 당시 중학생이었던 남매를 그곳에 두고 근처에 다닐 학교를 정하고, 아이들에게 말했다. "엄마 아빠는 이제 멕시코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개척선교를 하려 하니 너희는 너희끼리 먹고 자고 학교 다니면서 지내거라. 엄마 아빠가 정착되면 올게." 그리고 6개월간 못 갔다 한다.

이런 선교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선교는 그렇게 이해하는 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강행하는 선교사들이 이어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남매는 훌륭하게 성장했고 어린 시절에는 부모를 이해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그런 선교사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며 최고의 존경심을 갖고 있다. 그 남매는 둘다 한의과 의사가 되어서 부모의 선교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있다.



2010년 고등학교생이던 루카스가 찬양 인도를 준비하는 모습

"가수에서 사모로"

GBC 블레싱 콘서트

GBC 미주복음방송이 인기 가수에서 사모로 변신한 자두를 초대해 블레싱 콘서트를 개최한다. 김밥, 대화 필요해 등 인기곡을 부른 자두는 지난 2013년 미주 한인 출신의 지미 리 목사를 만나 결혼하면서 사모로 변신했다.

GBC 측은 "그동안 라디오와 인터넷으로만 소통했던 GBC의 사역을 확장해 공개방송 형태로 준비되는 GBC 최초의 콘서트형 공개방송"이라 소개하며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 섬겨 온 애청자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며 자두와 같은 고민과 상처를 가진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며 축복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콘서트는 2월 14일(수) 오후 7시 30분 나성순복음교회, 16일(금) 오후 7시 30분 에브리데이교회, 17일(토) 오후 7시 주님의영광교회, 18일(주일) 오후 7시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각각 열린다. 주님의영광교회에서는 오페라 캘리포니아,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는 갓스 이미지가 찬조 출연한다. 티켓은 10달러.

● 행복설계사 강태광 목사 칼럼

공홀히 여기며 흘리는 눈물이 치료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폭격기들이 영국 런던을 공격했습니다. 런던 시내에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공습경보가 요란하게 들리고, 폭탄들이 터지는 소리가 하늘을 가르고, 터지는 폭탄들에 의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폭격 후에 살아남은 런던시민들은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소위 전쟁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정신병원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정신병원에 있던 많은 정신병 환자들이 공습이 끝난 후에 정신병을 고칩니다.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영국 런던의 정신병원이 텅 비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공습이 있고 폭탄이 터질 때 환자들은 비록 정신병원에 있었지만 그들의 가족들을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신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 집착에 빠지고 정신 착란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자기의 도와는 달리 자기 파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웃음도 유익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합니다. 웃으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가능한 웃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큰 행복을 위해 눈물이 필요합니



그레이스 우 목사

미라클스재활센터 그레이스 우 목사 GMAN 선교회에서 세미나 및 상담

그레이스 우 목사가 LA를 방문한다. 미라클스세계재활센터 대표인 우 목사는 그동안 수술 전후의 환자, 선천성 장애인, 뇌 손상 환자를 영적, 육적으로 재활시키는 사역을 해 왔다. 그의 간증과 사역은 그동안 CTS America, 미주복음방송 등에 소개되며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심각한 교통사고로 인해 전

신마비를 겪었지만 기적으로 회복되며 재활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됐고 현재 플로리다에서 미라클스세계재활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선교지를 섬기고 있다.

우 목사는 GMAN 선교회(13921 Artesia Blvd, Cerritos, CA 90703)에서 1월 31일, 2월 3일과 4일에 세미나와 강의, 상담을 할 예정이다. 문의) 714-864-7540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대표

다. 눈물은 웃음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습니다. 특히 이웃의 아픔을 보고 공감하며 흘리는 눈물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흘리는 눈물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다이애나 현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린 사람마다 우울증에서 해방되고 정신병에서 치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얼마 전 월드쉐어(World Share) 활동을 위해서 수리남이라

는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고아들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열악한 삶을 살고 있는 고아들을 보며 많이 울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었던 시간이 지나고 제 마음에 우울함이 사라졌습니다. 상쾌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치유 받은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보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우는 눈물은 우리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 주고, 흐르는 눈물이 마음이 주름살을 펴 줍니다. 필자는 독자들이 사랑과 공홀의 마음으로 울기를 권합니다.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지면 불쌍한 이웃을 보십시오. 불쌍한 이웃을 보며 공홀히 여기며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십시오. 스스로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병들이 치유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임덕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렌다,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2018 공개방송

자두 와 함께하는 블레싱콘서트

'김밥'의 가수에서 목사의 아내로 부르신 이야기

수익금 전액은 GBC 특과원 확충과 다음세대 방송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사용됩니다.



이 콘서트는 ONDemand KOREA 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GBC 미주복음방송

공중파 방송: AM1190 Radio Station 주7일 24시간
인터넷 실시간 방송: www.kgbc.com / Mobile App: 미주복음방송
SNS 소통: KakaoTalk / 페이스북(AM1190 미주복음방송) / YouTube(미주복음방송TV)

2018년 2월 14일(수) 7:30pm 나성순복음교회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2018년 2월 16일(금) 7:30pm 에브리데이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2018년 2월 17일(토) 7:00pm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2018년 2월 18일(주) 7:00pm 남가주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 Ticket Donation: \$10
■ 티켓판매처: LA: GBC LA Studio OC: GBC Anaheim 본사 Internet: kgbc.com
■ 문의: 714-484-1190

특별후원: FOREVER 21

말은 자에게 구할 충성

고린도전서 4:1-13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교회는 본래 이름이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을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내신 장소라는 뜻입니다. 즉, 죄악에 찌들며 지옥길로 쫓겨갈 처지에 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실 수 있는 진리의 교회로 불러 모아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영적인 내세소망을 가꾸는 곳으로만 활용되어야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일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 '휘페레테스'로 종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를 이르는 말입니다. 교회의 목자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목자로 더불어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거나 직책을 맡으면 그 시간부터 예수님을 위한 '휘페레테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일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에 항상 성령에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인다는 위협 속에서 그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피투성이가 되고, 발목에 쇠고랑이 채워지고, 온 몸에 쇠사슬이 묶인 상태인데도 밤 중에 실라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그곳에 지진을 일으키시어 감옥이 다 허물어지게 만들고 그를 때린 간수장이 바울에게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를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며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육신의 입장을 완전히 초월해 영적 소망에 취하여 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목양기간에 영적 소망을 더불어 가꾸면서 그 믿음이 진정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내세 소망의 목적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목자와 모든 것이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고, 이 목자에게 계신 성령이 그 사람에게도 함께 하기 때문에 공감(共感)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목자를 통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에 성도들도 함께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든지 목자의 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조력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모여 있을 때야말로 바로 영적 공동체, 예수님의 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몸이라 했습니다. 새끼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 몸이

통증을 느끼는 것은 신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가 고통에 처해 있으면 하나의 성령이 신경처럼 연결되어 있기에 그 고통을 모두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하단에 있는 '비밀'이라는 말은 '무스테리온'인데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의 계시로 의해서 알려지게 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것은 공개된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아직 덜 알려진 부분,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란 이 교회의 직분자들과 직책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보더라도 확실히 거듭난 사람과 같이 옛사람과 그 행실은 다 없어지고 생각이 건전하고,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성실함으로 확실히 달라졌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의 자격을 얻게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은 자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스', 우리말로로는 집사(執事)로서 하나님의 일을 손에 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이 일을 놓지 않고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쥐어주신 일로 생각하고 직분과 직책을 감당할 때 온전히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말은 '나누어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거리를 손에 잡았다면 그것을 손에서 잠시도 내려놓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수직적인 연결고리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직분을 빼앗기고 자살을 하였을 때 예루살렘의 모든 이들이 그 처참함을 보게 되고 결국 지옥에 갔습니다. 그 직분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직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은 중심의 정성을 모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더 잘 섬기자는 목적으로 내 생활이 그 소원에 끌려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건강과 물질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교회는 사도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와 더불어 세웠습니다. 이후에 고린도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게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고린도교회가 목자가 필요하게 되자 베드로도 갔었고, 아볼로도 갔었으나, 그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영적 지도자를 구분해 가면서 말씀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주장이

나 이론을 내세워 그들을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하여 말을 만들어 험담하고 패당을 짓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 패당 짓는 것을 없애주기 위해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3-4절)"고 했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회개해서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죄 지은 것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여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곳에는 바울을 나쁘다고 말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즉,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영적인 은혜 분위기에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마귀적 역사인 것입니다. 지도자를 자주 판단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최고학부를 마치고 그 시대에 세계가 존경하는 석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를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성령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의 제자로 영적 지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6절에서는 이런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패당을 일삼고 또 그 패당의 세력 확장을

위하여 모략중상을 하면서도, 자신은 은혜 받고 구원 얻은 성도라고 떠벌리니까 너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게 주신 성령을 받았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느냐고 7절에서 꾸짖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의 입지적 여건은 동양과 서양의 교차지점으로 무역이 가장 성행하는 곳이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장사꾼들로 돈이 많아 사는 생활 속의 궁핍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돈으로 교회 안에서도 행세하며, 패당을 일삼고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 노릇 하였도다"는 말씀은 목자는 제쳐놓고 교회를 자기 맘대로, 생각대로, 욕심대로, 혈기대로 쥐고 흔들었다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28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들을 이야기 하며 오히려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목양기간에 신앙노선이 일치해야 합니다. 과거 어떤 교회에서 신앙지도를 받았던 간에 다시 지금의 교회로 보내셨다면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의 신앙노선과 일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체질 신앙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즉, 같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 교회적 사명의지에 일치해야 합니다. 모름지기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입니다. 이렇듯 선교하는 일에 합심전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이라이프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8 세계 교육 선교대회

전 세계 44개의 기독교대학과 810개 기독교 초, 중, 고등학교를 위한 교육선교

일시 2018년 2월 1일 (목) 12시 개회 - 3일 (토)

장소 플러신학교 오전 9시 ~ 오후 5시 / 나성영락교회 저녁 7시

주요 프로그램 오전/오후 교육 선교 특강, 학술 컨퍼런스, 선교지 학교 소개, 맞춤형 선택 특강
저녁 세계 교육 선교 연합집회: 전세계 교육선교를 향한 선교비전과 선교도전

참가대상

- 1) 해외 교육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
- 2) 해외 선교지 학교에서 봉사할 관심이 있는 전문인
 - 영어회화, 한국어 교사,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 상담, 영상, 홍보, 시설, 도서관, 의무실, 기숙사 사감, 식당, 산학협력, 비즈니스, 교무행정 등
 - 전공강의 교수 (석,박사)
- 3) 청년 사역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기독교 청년

참가 신청 및 문의

- 1) 참가 신청 www.paua.kr (홈페이지의 우측 상단 로고 클릭)
- 2) 대회 문의 (미국) 미국 준비위원장 이성우 목사 213-675-6493
사무총장 강성택 교수 213-384-5232
paua.america@gmail.com

(한국) 070-7530-4967
paua.global@gmail.com

주강사 소개



손봉오 교수, 임현수 목사, 한기홍 목사, 박연성 목사, 박은성 목사, 김남수 목사, 김성돈 목사, 정인수 목사, 안연성 교수, 권오문 총장, 구건희 총장, 김진경 총장, 송대근 목사, 황덕영 목사, 한기재 목사, 김창환 원장, 박기오 교수, 최복이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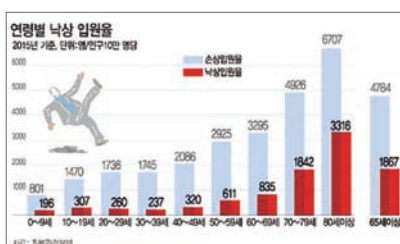
피로야 가라! 피로방지매트 (Prevent Fatigue Mat)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된 피로방지 매트(Prevent Fatigue Mat)로서 일하는 곳 바닥에 탄력적인 표면을 제공하여 서서 일하는 분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현저하게 예방하고 피로로 인한 만성질환에서 벗어나게 해 드립니다.
70%이상 피로 감소, 피로방지, 혈액순환, 하지정맥류 개선, 작업안전 증대, 미끄럼 방지, 충격흡수, 생산성증대, 노종자 보호, 관절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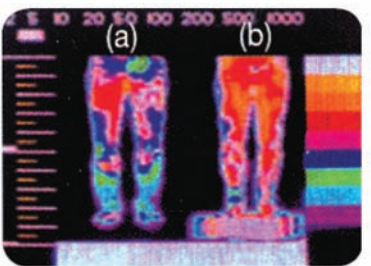
목사님!
목회자
특별할인 혜택
편안하게 피로방지매트에서
설교하세요!!!

- 서서 설교하실 때 충격흡수를 시켜 관절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피로를 줄여드립니다.
- 바닥에 앉아 기도하실 때 **기도매트**로 좋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미끄러지지 마세요!!!

- 미끄럼에 의한 골절과 상해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다 아시죠?
- 미끄럼방지 매트로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 침대 옆, 화장실, 주방, 거실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열영상선을 이용한 피로방지 매트 비교실험 (혈액 순환 정도와 근육 피로도를 비교한 그림)

- (a) 피로방지 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바닥의 경우
청색과 녹색이 종아리에 몰려 분포되어 나타나 있으며 이것은 현재 근로자가 원활하지 않은 근육활동과 혈액순환으로 피로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b) 피로방지 매트를 설치 한 경우
붉고 노란색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피로방지 매트의 독특한 인체공학적 설계의 탄력적 특성과 재질로 인하여 근육 및 혈액의 순환이 원활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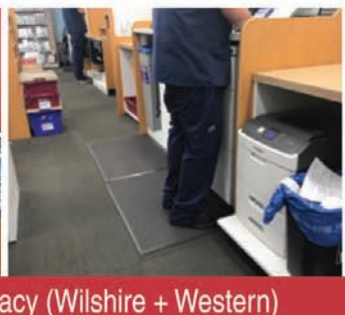
■ 미국판매기념 특별세일

<p>E- MAT</p> <p>피로방지용 사이즈 3ft + 2ft \$123 \$176 +tax 30% Off</p> <p>* 사이즈와 모양을 설치 장소에 맞게 만들어 드립니다.</p>	<p>SAFE KOREA MAT</p> <p>세이프코리아매트 (Safe Korea Mat) 사이즈 80cm+40cm \$75 \$60 +tax</p>	<p>NEW SUPER SAFE MAT</p> <p>슈퍼세이프매트 (Super Safe Mat) 사이즈 92cm+42cm \$90 \$72 +tax</p>
	<p>SAFE MAT</p> <p>사이즈 80cm+40cm \$95 \$76 +tax</p>	<p>SUPER SAFE MAT</p> <p>사이즈 3ft + 2ft \$145 \$116 +tax</p>

약국, 식당 주방, 가정집, 일반 소매점, 웨일하우스, 메뉴팩처, 디자인 하우스 등 서서 일하는 모든 사업장 자동차 공장 등 산업시설에 근로자 보호를 위해 피로방지 매트(Prevent Fatigue Mat) 설치



CVS Pharmacy (Wilshire + Western)



Hyundai Motors, Kia Motors, GM Korea, Renault Samsung



구입 문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



뉴욕교협이 15일 오후 7시 대동연회장에서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식을 500여 명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뉴욕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이만호 회장, 개척교회 도움 의지 재확인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만호 목사)가 15일 오후 7시 대동연회장에서 뉴욕지역 목회자와 평신도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을 열고 새해 사역의 힘찬 시작을 알렸다.

'예수사랑 실천 교협'을 기치로 내걸고 회기를 시작한 뉴욕교협 44회기는 새해 첫 행사 또한 풍성한 나눔으로 시작했다. 이번 신년감사예배는 이사장 김주열 장로를 비롯, 회장 이만호 목사가 솔선해 참석자들을 위한 선물을 푸짐하게 마련하는 등 최대한 참석자들을 섬기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몇년간 뉴욕교협 신년하례예배는 몇 차례 변화를 겪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신년감사예배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되면서 장소를 교회로 바꾸고 식사메뉴를 떡국으로 변경하는 등의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교협은 '사랑실천'을 내걸고 있는 만큼 자신해서 내어놓는 손길들과 함께 모처럼 예년과 같은 풍성한 신년하례예배로 돌아간 모습이었다.

회장 이만호 목사는 신년사를 통해서도 사랑을 실천하고 회원들을 섬기는 교협으로 서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만호 목사는 "새해에는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를 중대형교회가 협력해 도움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쏟겠다"면서 "여러 교협 행사를 통해 교회와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뉴욕교협은 올해 개척교회 100인 후원위원회를 조직했다. 100개의 개척교회를 돕는 일에 교협이 중재하겠다는 의지다.

1부예배는 정순원 목사(부회장)의 사회로 양민석 목사(개척교회 100인 후원위원장) 대표기도, 김주열 장로(이사장) 성경봉독, 퀸즈장로교회 연합중창단 '강하고 담대하라' 합창, 김성국 목사(목회자후생위원장) 설교, 김재권 목사(행사준비위원장) 대한민국과 미국, 선교사를 위한 특별

합심기도, 이주의 장로(재정분과위원장) 봉헌기도, 뉴욕권사선교협창단 국악찬양 메들리, 김전 목사(사회복지위원장)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2부 하례식은 김희복 목사(총무)의 사회로 문석호 목사(뉴욕목사회 회장) 개회기도, 애국가 및 미국국가 제창, 이만호 목사(회장) 신년사, 박효성 뉴욕총영사 축사, 한재홍 목사(증경회창단 회장) 축사, 론 김 뉴욕 하원의원 축사, 피터 구 뉴욕 시 의원 축사, 허정윤 경감(뉴욕시경찰대민담당관 한인 부책임자) 축사, 2018 목회자상, 평신도상 시상 및 공로패 증정, 뉴욕장로성가단 '생명 시네 강가에서' 축하, 김주열 장로(이사장) 후원금 전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2018년 목회자상은 김남수 목사, 안창의 목사, 신현택 목사가 수상했다. 평신도상은 이상호 안수집사가 받았다. 또 이날 손성대 장로는 공로패를 받았다.

3부 만찬은 허연행 목사(2세 선도분과위원장)의 만찬기도로 나눔밴드의 가스펠 찬양 축주, 김정길 목사 경품추첨 및 증정, 김진화 목사(서기) 광고, 조원태 목사(이민자보호위원회 위원장) 폐회기도 등의 순서로 마무리됐다.

1부 예배 순서 중 축사를 전한 박효성 뉴욕총영사는 "뉴욕교협은 뉴욕의 5백여 교회와 3천 명 이상의 교역자 그리고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소속된 기관으로 뉴욕 동포사회에 큰 자부심과 긍지가 되고 있다"면서 "동포 이민자들의 인식체와 피난처가 되고, 또 한미양국 간의 우호협력에 앞장서면서 아낌없는 헌신을 해오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 훌륭한 결실을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별합심기도를 통해 북핵위기 가운데 있는 한반도를 위해 기도했으며 미국과 한국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대원 기자



조지아센트럴대학교 신년하례 및 후원 감사의 밤

새로운 도전 통해 명문대학교로

조지아센트럴대학교, 후원 감사의 밤

조지아센트럴대학교(이하 GCU, 총장 김창환 목사) '신년하례 및 후원 감사의 밤' 행사가 지난 16일(화)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식사 및 음악회, 3부 후원이사회 위촉장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허상희 목사의 기도예 이어 나선 문성록 목사는 '새로운 도전'(룻기1:15-18)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문성록 목사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GCU가 뜻을 통해 앞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도전을 해 나가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전하고 "뜻은 현명한 선택으로 새로운 도전을 품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

는 "GCU가 새로운 도전을 통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에 참여하는 학교가 되길 축복한다"고 말했다.

김창환 총장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비전을 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명문대학교로 성장하여 간다"는 비전을 선언했다.

한편, 조지아센트럴대학교는 최근 조지아크리스찬대학교에서 명칭을 변경했으며 문성록 목사(포코노장로교회), 정두메 변호사, 허상희 목사(뉴저지성도장로교회, GCU 뉴저지 사이트 디렉터), 오적목장로(롬 한인장로교회), 한일철 목사(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 KAPC 동남노회 회장) 등을 신입이사로 위촉했다.



LA 지역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인간세계를 밝히려는,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세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LA백송교회
 역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자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245-6616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5번지)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복음을 알리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cia.org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믿음,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진 초 영혼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충현선교교회
 불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애매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어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 받은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org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조용철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일학교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제(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저성전) 오전 11시(본성전)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정성용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EM 1부 9:30/ 2부 11:00
중요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희동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기대연예 오전 10:20

서보람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시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Fax.310/787-778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말씀예배 오후 1:30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스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2:45
EM 오후 1:00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845-5431 F.(818)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윤대희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2:45
EM 오후 1:00

최혁 담임목사
주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 C. / 엘바인 지역



한국기독교수연합회 30주년 기념예배 및 포럼 기념사진

절대적 가치와 불변의 진리 전하는 기독교 교육 되어야

한국기독교수연합회 30주년 기념예배 및 포럼

한국기독교수연합회 30주년 기념예배 및 포럼이 '기독교 지성을 하나님께'라는 주제로 20일 한양대학교 다솜채플에서 열렸다. 이날 1부 행사는 찬양, 이병원 교수(경희사이버대학교)의 대표기도, 개회사, 한국기독교수연합회 연혁보고, 축사, 선교보고의 순서로 진행됐다.

개회사를 맡은 한국기독교수연합회 대표회장 이창원 교수(한양대, 한기연 부회장, 풀러신학교 방문교수)는 먼저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렸고, "기독교인은 선각자이자 사회 혁신을 이루는 최고의 지성"이었음을, 또 "캠퍼스는 수는 적었지만 지성의 요람이자 빛과 소금, 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주역, 한국을 세계적 위치에 있게 한 산과 역할"이었음을 언급했다.

이어 이 교수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캠퍼스에서 과거의 역동성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유롭게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새로운 희망을 가지길 소망한다. 각자의 처소와 일터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이다. 진정한 기독교 지성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고 포부를 다지며 참석관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이외 이민호 교수(남서울대학교), 강석 후 교수(한양대학교), 강주섭 교수(한양기독교신학회), 장금주 총장(키르기스스탄 유라시아대학교)이 각각 순서대로 한국기독교수연합회 연혁보고 및 역사 발표, 축사, 선교보고를 했다.

손봉호 교수는 "소크라테스와 그리스 사상의 바탕이 되는 것은 생득관념이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태어날 때 지식을 다 갖고 태어난다고 봤다. 그렇기에 스승은 교육을 할 때 질문하는 방식(산파술)을 쓴다. 반면 성경에서 인간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존재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말과 상통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신 것이다. 왜 그래야 하나?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라며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라 할 수 있다. 현대의 보편적 교육을 도입한 것도 종교개혁이었다"고 했다.

이에 더해 민주화와 경제적 번영의 바탕에 '교육'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교육자라는 자리를 좋아하지만 해선 안 된다. 큰 책임이 있다. 특권이 많고 영향력이 클수록 잘못할 때 큰 심판을 받는다. 얼마나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육자'의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손봉호 교수는 "AI가 교수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말하는 요즘 시대에 교육학에서 말하는 히든 커리큘럼, 보이지 않는 교육 과정이 끼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푸느냐에 따라 큰 영향력을 준다. 야고보 사도도 허를 강조했다. 말을 통해 인격이 나타난다. 또 말뿐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기능적 지식만 중요시하는 이 시대에 이것이 상대적인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과, 절대적 가치, 불변의 진리를 잊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어진 2부 예배는 박경희 교수(숙명여대)가 야고보서 3장 1-2절을 본문으로 성경봉독하고 손봉호 교수(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가 '그리스도인 교육자의 책임'을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김도영 교수(한양여자대학교)가 광고, 유신일 교수(연변과기대/평양과기대 대외부총장)가 선교보고, 이병원 목사가 축도했다.

손봉호 교수는 먼저 "기독교의 교육관"과 "소크라테스의 교육관"의 차이를 설명하며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라고 입을 열었다.

3부 순서로 진행된 '30주년 기념 포럼'은 김영길 총장(한동대 명예총장, 유엔아카데미 임팩트 한국 협의회 회장)이 '창조질서를 회복하자'란 제목으로 주제발표하고 황희서 교수(서울시립대학교)와 신기현 교수(건국대학교)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졌다.

한국기독교수연합회(전 전국기독교수연합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기독교인 교수로서 캠퍼스에 보냄을 받은 사역자들이란 정체성을 갖고 대학과 학문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모임으로 1988년 2월에 창립됐다. 김신의 기자



평창올림픽 관련 교계 설명회

평창 동계올림픽 위해 한교총 전도대와 봉사단 운영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춰 현장에서 '한국교회봉사단'을 운영한다.

한교총은 감리회 백만전도운동본부장 지학수 목사를 실무총괄 사무총장으로 세워 봉사단을 운영한다. 2월 9-25일 동계올림픽과 3월 9-18일 동계패럴림픽 기간 동안, 평창과 강릉에서 해외 참가 선수단과 관광객들에 대한 봉사활동과 함께 전도대 운영과 공연을 진행한다.

한교총은 지난 총회에서 이를 인준했으며, 1월 16일 소속 교단에 공문을 통해 봉사단(전도대) 파견과 거리 공연(플래시몹) 팀 파견, 교단별 재정 후원을 요청했다. 봉사단(전도대)에 참여를 원하는 교회 혹은 단체는 15-20명으로 팀을 구성해 1박 2일 기준으로 봉사할 수 있으며, 교통편은 해당 교회/단체가 부담하고 봉사단

에서는 음식과 활동용품을 제공한다. 거리 공연(플래시몹)은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만 경기장 인근에서 진행하며, 개폐회식 시점은 물론 대회 기간 중 강릉·평창·정선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를 선정해 수시 진행한다.

특히 플래시몹은 전문가 수준의 팀을 초청해 공연하거나, 청년대학부 활동이 활발한 교회 중 자원하는 교회에서 요청하면 협의를 통해 편의를 제공한다.

응원단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작은 나라들의 경기나 비인기종목 응원을 주목적으로 경기 서포터즈(응원단)도 모집하고 있다. 응원할 국가의 국기와 응원복, 도구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입장권의 단체구매가 필수이며, 관련 내용은 한국교회봉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대용 기자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 ©미국 가족연구위원회

“신앙을 취미처럼 가볍게 여기는 미국인들 너무 많아”

美 의원,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해 언급

미국 공화당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오클라호마)이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이 ‘믿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신앙을 취미와 같이 가볍게 여기는 기독교인들도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오클라호마 뱍티스트 컨벤션(Baptist Convention in Oklahoma)에서 학생 사역을 맡았던 랭크포드 의원은 지난 16일 가족연구위원회 토니 퍼킨스 회장이 ‘국가 종교자유날’을 맞아 진행한 라디오 프로그램 ‘워싱턴와치’(Washington Watch)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퍼킨스 회장이 미국의 종교자유 실태에 대해 묻자, 랭크포드 의원은 “우리는 정말 이상한 시기에 있다(It is a really odd season for us).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미국 역사에서 항상 있어 왔다. 그러나 미국인들과 지금의 문화적 시대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믿음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Freedom From Religious Foundation, FFRF)과 같은 미국의 무신론단체들은 교회와 정부 간의 엄격한 구별을 옹호하며, 공교육과 공적인 공간에서 신앙과 종교를 몰아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직장에서 신앙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받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랭크포드 의원은 “종교와 정부를 분리하려는 이들은 ‘만약 당신이 신앙이 있다면, 교회에서 스스로, 가족들과 신앙생활을 하라. 이를 일터에까지 가져오지 말라. 대화의 주제로 삼지 말라. 신앙을 분명한 공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한다”면서 “종교와 정부를 엄밀히 구별하는 것은 초대 건국자들의 뜻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랭크포드 의원이 지적한 또 다른 문제는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예배 시간 이외에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교인들에 대해 말할 때 도전 중한 가치는 ‘교인들이 교회 밖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신앙의 진실성과 기본적인 교리를 연습할 수록 교회, 집, 일터, 여가 장소 어디에서나 신앙의 일치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와 일터에서 같은 사람을 본다. 그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고 이것이 차이를 만들어 낸다. 만약 교회와 신앙이 주말에만 하는 일이라면, 이는 신앙이 아니고 취미이다. 취미는 주말에 하는 어떤 일”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탈 동성애’ 간증 영상 공개했다가 피소

최근 한 기독교인 블로거가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동성애를 떠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공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녀는 현재 임신 소식도 함께 전했다.

그러나 영상을 공개한 단체 ‘앵커드 노스’(Anchored North)는 영상이 공개된 이후, “주인공 에밀리 토메즈는 세뇌된 것”이라며 한 언론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생명 위협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밀리 토메즈의 영상은 지난 12월 후반부터 지금까지 약 210만 번 조회가 됐으며, 수 많은 논쟁과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한 페이스북 사용자는 지난 주에 단체 앞으로 “가서 당신을 한 명씩 죽이고 싶다. 또 당신들 가족들을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이고 싶다”며 협박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앵커드 노스의 그레그 수커트(Greg Sukert)는 15일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디어를 통한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살해 협박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했다.

수커트는 그러나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을 알라(요 15:18)’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것처럼 인간이 타락했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셋째, 그들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신뢰하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시 139:13) 날 만큼 살 것이라고 믿는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삶의 변화가 필요한 이들, 우리를 험박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운우함을 드러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었다”고 말했다.

이 언론에서는 “토메즈가 더 이상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세뇌를 당했기 때문”이라며 “그의 간증이 성소수자들에게 성을 바꾸라고 제안하여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혜진 기자

이란 개종자, 무슬림 1,500명 주님께 인도

한 이란 개종자가 현재 스웨덴교회(the Church of Sweden)의 안수받은 사역자가 되어, 지난 5년 동안 약 무슬림 1,500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돕고 있다. 그 주인공인 안나히타 파산(Annahita Parsan)은 지난 13일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커다란 환란을 겪었던 내 삶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했다.

이란의 한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16살 때 결혼을 했으나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게 됐다. 그녀는 아들의 양육권을 위해 법정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했다. 2년 후 그녀는 아내와 별세한 한 남성과 재혼을 했다. 그러나 두번째 남성은 그녀의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이혼을 원했으나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파산과 그녀의 딸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1984년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서 난민이 되었고, 여권이나 신분증

이 없다는 이유로 터키 교도소에 한달 동안 수감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그들은 덴마크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비밀로 한 채 성경읽기를 시작했고, 신앙은 계속 자라났다. 스웨덴으로 건너간 지 2년 후 그녀는 기독교인으로 세례를 받았다. 2006년에 교통사고를 겪었으나 다행히 생존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녀는 하나님께서 무슬림 전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됐다.

2012년 파산은 스웨덴교회의 목회자가 되었고, 무슬림 공동체 전도 사역에 집중했다. 그녀는 무슬림들이 기독교 신앙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교회로 초대했다.

그녀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지난 5년 동안 약 1,500명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도왔다고 한다.

강혜진 기자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찬양부 오전 9:30, 11:30
한아태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생가지 예배 : 매일 4배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벤틀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9-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 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령 영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아부 오전 11:30
KMC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 (청년 영예)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 (토)
4부예배 오후 1:30 (청년 한국예) 청년부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FAV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예)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섬김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 (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 (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예수님의 재지되고 재지되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성령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일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백정우 담임목사**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다우니제일 교회
새 사람을 인양라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 오전 8시 수요일기도회 : 오후 7시 30분 **람학훈 담임목사**
2부 : 오전 9시 30분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30분
3부 :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오전 6시
영어예배(EC):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 오후 1시 30분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AMES KWA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PASTOR STEVE CHANG**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L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새해 맞이 골드 멤버십

정수기 물병 Free

* \$290 월4회 개인 레슨
정회원 한달(무제한 불사용)



무제한 연습볼!

*골프 멤버십 200볼 상당의 정수기 물병 Free



- 물병의 6가지 특징
1. 향산화
 2. 풍부한 아연
 3. 알카리 밸런스
 4. 작은 물 분자 클러스터
 5. 열소계거
 6. 흡이온
- 건강에 필요한 것 충족

좋은 물 마시는 습관을 위해, 파이물립!

- * Classy Style Bottle의 디자인
- * 클래식 스타일 캡은 복유림의 감성을 더해 심플하고 기품있는 디자인으로 구현하였습니다.
- * 한 손에 들어오는 크리로 그립감 또한 뛰어납니다.
- * 가벼운 스텐레스 재질로 휴대하기 편리하며 등산, 여행, 캠핑, 사무실, 가정 등에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 * Classy Style Bottle의 구성
- * 더블 카트리리지
- * 클래식 스타일 캡은 상/하의 특별한 카트리리지가 있습니다.

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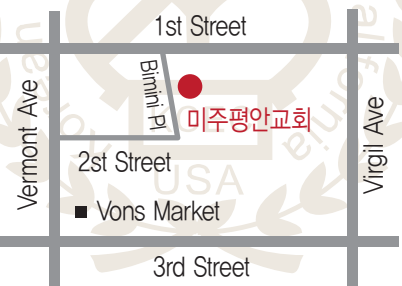
Jacob Choi 최제익 T.(310)598-0746
GOLF PROFESSIONAL

제43대 남가주 한인 장로협의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취임회장: 김용식 장로
이임회장: 한철수 장로

- 일시 : 2018년 1월 28일(주일) 오후 5시
- 장소 : 미주평안교회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 문의 : T.(818)522-2780

화환은 사양합니다



남가주 한인 장로협의회
Korean Christian Elders in California



부모사랑

카탈리나 섬 / 엔세나다(멕시코)

바하 멕시코 크루즈 Carnival

5월 \$290

- 모든 비용 포함 (항만세/부두세/경부세 등)
- 기항지 선권관광 및 일대 탐 답

DATE	DAY	PORT	ARRIVE	DEPART
1/22	월	롱비치 (LA)		5:30 PM
1/23	화	카탈리나 섬	7:30 AM	4:30 PM
1/24	수	엔세나다 (멕시코)	8:00 AM	6:00 PM
1/25	목	전일 항해		
1/26	금	롱비치 (LA)	7:00 AM	

www.prttour.com
213. 739. 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도시 바벨론은 왜 음녀인가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도시의 매력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도시에는 사고 싶은 물건이 가득하고, 즐거운 오락과 흥겨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짐승을 매매하는 장소도 있고, 무디어진 농기구를 날카롭게 버리는 대장간도 있습니다. 도시에 장이 설 때면 좌판에는 상품이 더욱 풍성하고, 그 날에 다른 곳에서 온 많은 상인들이 있습니다. 음식점과 주점도 흥청거립니다.

이런 도시 가운데는 거대한 고대의 국제도시가 있었습니다. 니느웨, 바벨론, 테에베, 카이로, 콘스탄티노플, 로마와 아테네, 고린도와 베이징이 그것입니다. 현대에도 1,000만 명 이상이 사는 초대형 도시들이 즐비한데, 상해, 도쿄와 서울은 물론이고, 미국 내의 뉴욕과 우리가 사는 로스앤젤레스, 브라질의 리오 데 자네이로와 페루의 리마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 영국의 런던 및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의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이러한 도시들의 종교성을 빼놓지 않고 기록합니다. 도시의 풍요함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는 역사의 대표적인 도시인 바벨론이 어떠한 종교

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바벨론은 안타깝게도 호화로운 “음녀” 혹은 “창녀”(prostitute)로 표현되며, “모든 창녀들의 어미”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도시는 매우 부유하지만, 그 역할은 창녀의 역할에 다름 아니라고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러운 이름을 가진 도시는 당시에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로마”라는 도시의 역할이 로마제국 내의 창녀의 역할에 해당된다는 지적입니다.

시대정신(Zeitgeist)은 종종 우리를 세뇌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시대정신에 대응하는 선지정신(Prophetgeist)은 성령으로 시대를 통찰하여 비평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린스턴대 고등연구소의 정치사상가 마이클 월저(Michael Walzer)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중심으로 당시의 시대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사회비평가”(social critics)였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사로운 단순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세상 나라, 당시의 로마를 “창녀”로 표현한 문명비평가입니다.

창녀 로마는 외견상 압도적인 호화롭고 사치로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음녀일 뿐입니다. 종교적으로 로마는 온갖 종류의 잡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로 경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그것에 취하여 있기 때문(계 17:6)입니다. 정치적으로 창녀 로마는 적그리스도인 짐승, 곧 타락한 황제의 등에 타고 있습니다(계 17:3). 즉 로마는 타락한 정치질서에 편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이 바벨론 즉 로마는 모든 땅의 왕, 온 땅의 군주들을 자신이 가진 진귀한 상품으로 미혹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속도시가 바벨론이 아닌가 목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도시 새예루살렘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천명의 영적 의미?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선언하면서 안 그래도 민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에 새로운 분쟁을 촉발하고, 이슬람 세계에 강력한 반발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언을 하는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새롭게 천명한 선언도 아니고, 이미 그렇게 인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던 사실을 재천명한 것이고, 선거 공약을 지킨 것뿐이라고 대통령은 말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현실에 대한 인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주권국가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수도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 주권국가이며, 이를 인정하는 것이 평화를 얻는 데도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한 대목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평화를 얻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분쟁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옛날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제가 지은 성전이 있던 유대인의 성지지만 지금은 황금돔이 자리 잡은 이슬람의 성지이기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도 합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며(창 22:2), 다윗이 범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이스라엘 땅의 재앙을 그치게 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고(삼하 24), 결국 솔로몬의 성전 터가 된 곳이며(대하 3:1),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곳이기도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곳에 이슬람의 상징인 황금돔이 자리 잡고 있고,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가톨릭과 정통교회들은 주기적으로 이곳을 성지순례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옛날의 영화를 다시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성전을 회복하고 싶은 정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소위 ‘제3 성전 운동’은 신학적으로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세계 평화가 아닌 세계 전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여행할 때 ‘성지순례’라는 말을 편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요 2:17) 경고하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즉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물은 결국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사역을 의미하는 상징이었습니다(참고/막 8:31; 고전 15:4). 이제 성전은 성령이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성전입니다(고전 3:16). 옛 성전 터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리고 솔로몬 성전을 세울 아무런 신학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마치 기독교인을 대변한 영적인 선언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 선언을 정치적 이슈를 넘어 신학적, 신앙적 의미를 두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



박성근 목사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2018년 무술년 새 해가 밝아 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 어떤 꿈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는지요?

한 사람의 거지가 화실 장문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패배와 절망으로 가득찬 어두운 모습이었습니다. 흐린 눈에 머리는 며칠을 감지 않았는지 마음대로 험물어져 있었습니다. 웃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누추했습니다. 이것을 창 밖으로 바라보던 화가가 캔버스에 그 사람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가의 거지의 모습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초점이 없는 눈 대신 반짝이고 생기 넘치는 눈을 그렸습니다. 실망으로 풀이 죽은 얼굴 대신 희망에 찬 밝은 표정을 그렸습니다. 너털너털한 거지의 옷 대신 고급스럽고 품위 있는 신사의 옷을 그려 입혔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화가는 거지를 불러 그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거지가 물었습니다. “그림 속에 있는 저 멋진 신사가 누구입니까?” 화가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지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니 자신의 얼굴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거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스스로를 한 번도 멋진 신사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낙오자, 가난뱅이, 실패자, 희망이 없는 인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새로운 운명이 그려져 있는 것

입니다. 바로 그때 그는 흥분에 가득찬 얼굴로 화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과연 저 그림 속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당신이 내릴 결단과 믿음이 어떠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화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누추한 자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로, 절망에 찌든 자가 아니라 희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그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금년 한 해 이 비전의 날개를 타고 주님과 함께 날아 오르지 않을까? 살롬!

“복음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현주소와 전망

역사신학자 로저 올슨이 쓴 ‘복음주의 신학’의 교과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지만 누구도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단어들 몇몇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복음주의(Evangelicalism)’일 것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소개하지만, ‘복음주의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막상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복음주의’에 대한 정의를 시도해 왔다.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는 데이비드 베빙턴(David Bebbington, 1949-) 스코틀랜드 스털링대학 역사학 교수가 규정한 복음주의의 핵심 4요소, ‘베빙턴의 사각형’으로도 불리는 회심주의·성경주의·십자가 중심주의·행동주의이다.

〈세계 복음주의 지형도〉를 쓴 이재근 박사(웨스트민스터신대원)도 “신학 진영으로서 오늘날 복음주의 진영은 에큐메니칼-자유주의 진영과 일정한 구분선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 한 특정 교파나 신학체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보편적 신앙고백 아래 묶인 느슨한 신앙공동체이므로 특정 신학 전통만을 독점적·배타적으로 따르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학문적으로 균형감을 갖춘 명쾌한 해설을 찾기는 쉽지 않다. ‘복음(gospel)’ 자체의 폭이 넓기도 하지만, 저마다 자신의 신학 또는 목회가 정통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 이 용어를 갖다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이란 그 옛날부터 회자됐지만, 지금까지도 ‘유통기한’이 만료되거나 더 이상 쓸모가 없어 폐기되지 않고 지금도 논의되고 변화를 겪고 있는, ‘현재진행형 신학’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복음주의 역사신학자 로저 E. 올슨(Roger E. Olson)의 책 〈복음주의 신학사 개관(원제 Pocket History of Evangelical Theology)〉의 출발도 바로 그 지점, ‘ 과연 복음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물론 시작은 불안하다. “복음주의는 엄밀하게 동의된 의미가 부재하는 사상과 범주로서, 본질적으로 이론(異論)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개념(노널드 데이턴)”이라는 것이다. “복음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은 몇몇 경우에 타당해 보이며, 이 같은 용례는 통시적·공시적 관행으로 정당화된다.”

저자는 복음의 어원과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로부터 출발해 16세기 종교개혁과 17세기 경건주의, 18세기 대각성운동과 청교도, 19-20세기 윌리엄스톤 신학과 성경-오순절주의, 근본주의를 거쳐 오늘날 대중들이 이해하는 의미까지, ‘복음주

의’ 신학의 기원과 역사를 소개하면서 논의를 출발한다. 그것이 1부 ‘서론: 복음주의의 정의’와 2부 ‘복음주의 신학의 기원’의 주 내용이다.

여기서 저자는 “복음주의 신학을 가장 간단히 정의하자면, 역사적 개신교의 정신을 목적으로 삼는 복음주의적 운동의 맥락 안에서 형성된 신학”이라며 “복음주의자들은 문화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일을 지양하고 비판하지만, 동시에 현대적 소통 수단을 사용하여 복음을 문화의 표현방식대로 해석해 보여주면서 현대의 문제들과 연관시키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1-2부에서 언급한 복음주의 역사와 그 신학적 특색은 3부에서 그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1940-50년대 후기근본주의적(Postfundamentalist) 복음주의’ 신학을 위한 전제이자 배경이 된다. 이 신학 사조를 이끈 복음주의 신학자와 운동가들은 1942년 풀러신학교 초대 총장인 해럴드 오켄가(Harold John Ockenga, 1904-1985)를 중심으로 ‘전국복음주의협회(NAE)’를 창설하면서, 근본주의 운동에 말 그대로 새로운 얼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이끌었다. NAE는 이전의 근본주의자들처럼 자유주의에 대해 격렬한 투쟁을 벌이기보다, 가능한 많은 수의 회심주의 및 보수주의 개신교인들을 포용해 협력을 증진하고, 문화 전반에 강력한 복음주의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 모든 것에는 긍휼(사랑)을’이라는 이들의 구호에 그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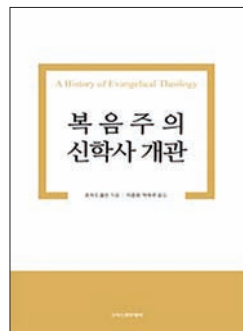
당시 교계를 주도하던 근본주의자들 입장에서 NAE의 헌장과 전망은 과도하게 넓은 범위를 포용하는 것이었던 만큼, 그들은 서로 간에 공존과 협력, 즉 복음주의자들 간의 동료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느슨한 복음주의 네트워크 형태를 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의 치명적 약점은 바로 ‘응집력 부족’이어서, 전망이 밝지는 않았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한 명의 강력한 ‘지도자’ 때문이었다. 1918년 생으로 올해 100년째를 채운 빌리 그래함(Billy Frank Graham)이었다. 저자는 “빌리 그래함과 그의 사역이 없었더라면, 복음주의와 복음주의 신학 어느 편도 존속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까지 평가한다.

저자는 “후기근본주의의 모습으로 정착된 복음주의 및 복음주의 신학은 두 가지 사안에 주안점을 뒀는데, 이 사안들은 그래함이 제시한 양



책 3부에서 소개한 복음주의자 5인. 왼쪽부터 칼 헨리, 에드워드 카넬, 버나드 램, 도널드 블로쉬, 클라크 피녹.



복음주의 신학사 개관
로저 E. 올슨 | 박육주 · 이종원 역
크리스천투데이 | 236쪽

대 주제로부터 나왔다”며 “그것은 개인적 회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교로의 회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하신 말씀인 성경”이라고 설명했다.

빌리 그래함전도협회(BGEA)와 1947년 오켄가가 설립한 초교파 복음주의 신학교인 풀러신학교(Fuller),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알릴 잡지 ‘크리스천리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는 이후 복음주의의 중심점이 됐다.

이 책은 이후 풀러신학교 창립 교수진의 일원이자 크리스천리티 투데이의 창립 편집자로서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학장’으로 불린 칼 헨리(Carl F. H. Henry, 1913-2003), 헨리의 동료이자 오켄가의 후임으로 풀러신학교 총장을 역임한 에드워드 카넬(Edward John Carnell, 1919-1967), 침례교 신학자 버나드 램(Bernard Ramm, 1916-1992), ‘중재하는 신학자’로 불린 진보적 인사 도널드 블로쉬(Donald G. Bloesch, 1928-2010), 캐나다의 클라크 피녹(Clark Pinnock, 1937-2010) 등 ‘후기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중심인물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논의를 정리하면서, 로저 올슨 교수는 이 5인에 대해 “이들의 기초 신학방법론은 서로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의 본성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며, 완전 축자영감과 엄밀한 무오성 등 성서의 본성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며 “이들 모두는 무엇 때문에

‘복음주의 신학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초자연적 삶의 영위와 세계관 정립에 전념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자 구원자시라는 것,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초월적인 동시에 내재적인 분이시라는 것,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시라는 것,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회심을 이룰 때 수여되며 이는 오직 은혜로만 가능케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전념했다”고 했다.

또 “이들은 전도와 사회활동을 통해 세계가 변화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상실된 인간성의 화해와 구속을 위한 유일한 소망이자 방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힘쓴다”며 “그래서 이 5명의 신학자 및 모든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전체 기독교 신학계 내부에 존재하는 다른 많은 신학 집단 및 운동들과 비교할 때 상당한 수준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그러나 복음주의 신학 내부와 복음주의 신학자들 사이에 긴장을 유발하는 여러 요소들은 복음주의의 신학적 통일을 해체하려는 위협으로 다가온다”며 “복음주의는 상대적으로 통일된 모습을 보이는 하나의 운동으로 존속해 왔으나, 내부 분쟁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더 이상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책은 이런 긴장 요소, 즉 칼빈주의 vs 아르미니우스주의, 개혁론자들(reformists) vs 전통주의자들(traditionalists), 성경 무오성(inerrant) vs 무류성(infallible), 광의의 관점(broad view)과 협의의 관점(narrow view), 열린 유신론(open theism), 포스트모던 사상의 차용 등을

간략하게 개관한다.

그리고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 스탠리 그렌츠(Stanley J. Grenz), 케빈 밴후저(Kevin Vanhoozer), 낸시 머피(Nancey Murphy) 등 젊고 혁신적인 사상가들과 웨인 그루텐(Wayne Grudem), 노만 가이슬러(Norman Geisler), 알 몰러(Al Mohler Jr.) 등 복음주의의 전통적 정체성과 경계를 수호하려는 신학자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 ‘복음주의 신학의 교과서’를 마무리한다.

이 책은 저자의 〈The Westminster Handbook to Evangelical Theology〉를 보다 간결하게 정리한 책 〈Pocket History of Evangelical Theology〉를 번역한 것이다. 로저 올슨 교수는 독보적 역사신학 전문가이자 지역교회 강단을 사랑하는 목회자로서, 미 라이스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베일러대 조지 트루엣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본서를 비롯해 〈신학 논쟁(God in Dispute: Conversations Between Great Christian Thinkers, 새물결플러스)〉, 〈보수와 자유를 넘어 21세기 복음주의로(How to be Evangelical Without Being Conservative, 조이선교회)〉, 〈오두막에서 만난 하나님(Finding God in the Shack: Seeking Truth in a Story of Evil and Redemption, 살림)〉, 〈이야기로 읽는 기독교신학(The Story of Christian Theology)〉, 〈삼위일체(The Trinity, 대한기독교서회)〉, 〈20세기 신학(20th-century theology, IVP, 공저)〉 등을 썼다.

이 책에 대해 김영한 박사(기독교 학술원 원장, 숭실대 기독교학 대학원 초대원장)는 “복음주의 신학의 현주소와 전망을 제시하는 탁월한 개관서”라고 평했다.

이대웅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초대합니다

OC 장로협의회 회장, 이사장이 취임식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여 주셔서 축하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2018년 2월 4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참빛 장로교회
7378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el.(714)514-3913
- **문의:** 회장 한창훈 (714)383-5303
이사장 김도영 (714)452-3006
총무 강신욱 (714)349-4002

OC 장로협의회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샀고려대 안암병원내 샀

입점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알칼리성 셀라케어

산성	중성	알칼리성
3.5	6.0 7.0 8.5 9.0 9.5	10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주기도문 교회의 입구



교회를 건축한 아우렐리아의 무덤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59)

아버지여! 주기도문 교회

황녀 아우렐리아의 헌신

승천 돛에서 걸어서 약 2분 정도를 감람산 남쪽 능선 쪽으로 내려가면 'Pater Noster'이라 부르는 주기도문 교회가 나온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된 데는 모친 헬레나의 믿음이 큰 역할을 하였다. 헬레나는 당시 귀족층에서 믿기 어려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 아들에게 직간접으로 예수의 영향을 미쳤다. 황제는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어머니의 소원대로 예수님과 관련된 교회를 건립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는다. 헬레나는 예루살렘에 여러 교회를 최초로 건설하게 된다. 베들레헴의 탄생교회,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 무덤교회, 감람산의 주기도문 교회 등이다. 헬레나가 건설한 3대 교회 중 하나인 주기도문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면서 쉬시고 기도하셨다는 감람산 남쪽 능선에 367년 설립됐다. 처음 교회의 터에 세워진 제단의 일부는 교회 정문으로 들어가 아래로 내려가는 동굴에서 발견할 수 있다.

동굴의 입구에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된 돌판이 벽에 새겨져 있다. 처음 교회 이름은 "제자들의 교회"라고 하였지만 나중에 교회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었다. 곧 주기도문 시작 부분에서 따온 말로 Pater Noster라는, 라틴어로 "우리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하였다. 이 교회는 614년 페르시아에 의해 파괴되고 1106년 십자군에 의해 복

원되고 1152년 덴마크 교회의 후원으로 완전히 복원된다. 그러나 1187년 아랍의 살라딘 장군의 예루살렘 침공 후 맘룩(Mamluk) 무슬림에 의해 1325년 완전 파괴되었다. 오랜 세월동안 방치된 교회였지만 1868년 프랑스 황녀인 아우렐리아(Aurelie de Bossi de la Tour D, Auvergne)가 이 버려진 교회 터를 사서 1875년 새롭게 교회와 카르멜 수녀원을 건축하고 프랑스 정부에 기증하고 본인은 이곳에 묻혔다. 황녀는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천원 동굴은 그대로 보존하였다.

그리스도의 종말에 대한 예언

이곳에 가면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종말에 관한 교훈을 주신(마24:29-44, 마26, 막13:3) 동굴을 먼저 방문하게 된다. 동굴 입구에는 히브리어와 아람어

로 된 주기도문이 벽에 부착되어 있어 원어로 주기도문을 한번 읽으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다.

동굴 안에서 함께 주기도문을 부르며 주기도문을 외우면 참으로 감격이 넘친다. 성지에 있는 여러 기념교회들을 방문하면 가는 곳마다 은혜가 되지만 이 동굴은 나에게 특별한 눈물을 흘리게 한 곳이다. 두 눈을 감고 조용히 주기도문을 외우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보자.

동굴에서 나와서 회랑 쪽으로 계단을 타고 오르다 보면 벽면에 세계 100개국의 언어로 기록된 주기도문을 만나게 된다. 특히 지붕의 아치가 십자군 시대의 아치 형태로 매우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선교회

아름다워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멋진 사진이 나온다.

침묵 수도원

회랑을 지나 작은 문으로 들어가면 왼쪽으로 황녀의 무덤이 있고 전면에는 침묵 수도원이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주기도문이 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문을 나서면 좁은 골목 같은 곳에 우리나라 말로 된 주기도문이 있다.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참석하고 귀국길에 이곳을 방문하였던 부산교구 초대교구장 최재선(요한) 주교가 세계 각국에서 헌정한 주기도문이 있는데 한글로 된 주기도문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한글로 된 주기도문을 헌정하게 되었다. 그 후 한국 개신교회에 사용하는 개역 성경에 따른 문구로 교체되었다가, 천주교에서 정식으로 자신들이 사용하는 성경의 문구로 변

역된 주기도문을 하나 더 만들어 벽의 회랑에 전시하였다.

자료마다 다르지만 85개 언어 혹은 100개 이상의 언어로 기록된 주기도문이 벽에 부착되어 있어 각국에서 온 순례객들의 자기 나라 언어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본다.

감사한 것은 우리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문을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정해 주시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말세에 어떠한지 할지 주기도문과 말세의 징조를 바라보며 다시 점검해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이다. 어느 장소이든 문제는 자기에게 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다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본다. 필자의 생각은 어느 장소나 다 중요하므로 문제는 자기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



100개국의 언어로 된 주기도문 가운데 한국어 주기도문도 보인다.



침묵 수도원의 모습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2017년 겨울학기 신(편)입생 모집

수시 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역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 (한국과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치유와 회복이 있고
꿈과 사랑이 가득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요 치유예배

Healing & Happiness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나눔과 섬김의 교회

SHARING & SERVING CHURCH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 M.A 석사과정 | 48학점
-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참, (진리의 길)
알, (학문의 길)
살, (십자가의 길)



‘팽창’ 극단 이슬람... 타종교인은 인종청소·계층화 오픈도어 ‘기독교 박해 순위 2018’ 및 박해 동향

2017년 전 세계 그리스도인 11.5명당 1명이 차별, 폭력, 압박 등 심각한 수준의 박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s)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지구상 76억 명 중 오픈도어 박해점수 41점 이상의 60개 박해국가에 51억 명이 살고 있으며, 이중 약 16%인 8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박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억 명 중 27%인 2억 1,500만 명은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했다. 이는 전 세계 24억 8천만 명의 그리스도인 중 약 8%에 해당되는 숫자다.

2억 1,500만 명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 분포는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에 1억 1,331만 명(53%), 아프리카에 8,114만 명(38%), 라틴아메리카에 2,005만 명(9%), 나머지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에 1만 1,800명(0.01%)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 그리스도인 3.5명당 1명, 아프리카 그리스도인 7.5명당 1명, 라틴아메리카 그리스도인 30명당 1명, 이 외 세계의 그리스도인 7만5천 명당 1명이 신앙 때문에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 2017년 3,078명 그리스도인 살해 당해

기독교 박해 순위(WWL, World Watch List) 2018 조사 기간(2017년) 믿음을 이유로 살해된 그리스도인은 3,078명으로, 2015년 7,106명보다는 줄어들었으나 2016년 1,207명보다 증가했다. 2016년 통계에서 살해된 그리스도인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나이지리아의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의 활동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에는 나이지리아의 무장한 풀라니 무슬림 목동 세력이 그리스도인을 무차별 공격하면서 그 수가 늘어났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인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쫓아내고 살해하여 공동체에서 제거하는 ‘종교적 청소’(religious cleansing)라는 미명 아래 그리스도인에 대한 살해를 자행했다. 나이지리아 전국에서는 작년 한해 최소 2천 명의 그리스도인이 죽임당했다.

◆ 50위 순위에 진입한 네팔(25위)과 아제르바이잔(45위)

WWL 2018의 50개국에 새로 진입하자마자 25위를 기록한 네팔(64점)은 종교적 민족주의가 강하게 대두되면서 힌두교 급진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에 압력 가하고 폭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역시 45위로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한 아제르바이잔(57점)은 경찰의 급습과 체포가 이어지고 있다.

◆ 박해가 강화된 리비아(7위)와 인도(11위)

박해점수가 눈에 띄게 상승한 국가는 리비아(86점), 인도(81점)로, 모두 작년보다 박해점수가 8점 올랐다. 인도에서도 급진적 힌두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조사 기간 최소 8명의 기독교인이 호전적인 힌두교 신자들에게 신앙을 이유로 살해됐고, 최소 34개 교회가 피해를 입고 2만4,000여 명의 기독교인이 공격을 받았다.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박해는 단순한 폭력 그 이상이다”며 “박해점수 41점 이상인 국가의 2억 1,500만 명이 겪는 ‘높은 수준’의 박해는 살해나 긴 징역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선교회에는 “휴양의 천국인 몰디브(78점, 13위)는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적 사건이 보고되진 않지만, 교회 생활 영역에서 박해 압력은 최고 수준인 것이 그 예”라며 “몰디브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고 교회 모임이 전혀 열릴 수 없으며, 심지어 해외 기독교 신자들도 국가의 박해를 염려해 공개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작년 한 해 이슬람 팽창주의에 의해 이슬람국은 물론 비무슬림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이슬람 포교 노력이 이뤄졌다.

이슬람은 특히 빈곤한 사회 집단에서 재정 지원을 받기로 적극적으로 세를 넓혔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평화’를 이유로 기독교인에 대한 인종청소와 대량학살을 자행했다. 이슬람 내에서도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폭력 분쟁으로 많은 기독교인이 박해의 표적이 되었고, 서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가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박해점수는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해 박해가 심화되는 경향을 반영했다. 2014년에는 90점 이



파키스탄에서 박해로 죽은 동료의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 ©오픈도어선교회

상인 국가가 1위인 북한밖에 없으나, 2018년 통계에서는 북한(94점), 아프가니스탄(93점), 소말리아(91점)가 90점을 넘었다. 그 외 국가들의 박해 점수도 지난 3~4년간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며, 일부는 눈에 띄게 급등하기도 했다.

2007년부터 2008년 극심한 박해지역의 그리스도인 수도 1억 명이었으나, 10년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극심한 박해지역의 그리스도인은 2억 1,50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나 폭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거나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긍정적인 현상도 있었다.

◆ 아시아 이슬람 극단주의 팽창

중동에서 설 자리를 잃은 IS가 아시아, 특별히 서남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오픈도어는 IS가 많은 무슬림이 거주하는 아시아에서 좀 더 편안하게 활동하기 위해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들의 테러활동을 제지할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아시아에서 급진적으로 팽창할 수 있다”며 “이들의 자생적 테러는 이미 수십 년 존재해 왔고, 활동 범위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넓히면서 청소년들에게 바이러처럼 침투하고 있다”고 오픈도어는 말했다.

작년 필리핀 마라위에서 발생한 사건은 급진적 이슬람 무장 세력

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증명했다. 급진적 이슬람 무장 세력은 인구 20만 명인 마라위를 약 150일간 점령하는 동안 교회, 기독교 학교를 가장 먼저 공격하고 기독교인들을 선별해 살해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는 이슬람 세력의 긴밀한 협력과 투쟁이 깊어져 내전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폭탄 공격이 발생했고 코란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발언으로 신성 모독에 걸려 형을 받은 인도네시아 아욱(Ahok) 전 자카르타 총독 사건도 발생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비무슬림을 겨냥한 불관용의 구호가 배너, 출판물, SNS 게시물 등에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압박은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 교육 기관에서 기독교인들이 공개 차별을 당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이러한 추세의 주요 피해자로 보고됐다. 파푸아 등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 정부 기관은 이슬람 확산을 공개 지지했고, 과거 비밀리에 행해진 모든 재정 지원과 공공 지원이 공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슬람 포교는 빈곤한 사회 집단 가운데서 정부 등이 제공하는 충분한 재정과 자원이 뒷받침되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에서 지원과 함께 진행되는 이

슬람 포교는 전통적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있다.

오픈도어의 한 연구원은 “이슬람화 전략 중 일부는 불법이며, 단지 가난한 사람들을 사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폭력도 수적으로 성장하는 무슬림 공동체에서 나온 시나리오일 수 있다고 오픈도어는 지적했다.

◆ 점점 더 극단화되고 팽창하는 이슬람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는 기독교인의 종교 자유가 여러 방식으로 침해받고 있다. 북부 12개 주에서는 법적 절차 없이 샤리아법(이슬람 율법)이 선포돼 지방 정부와 사회단체들에 의해 기독교인들의 신앙 생활이 제한받고 있다. 이 사태는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활동하는 보코하람의 잔혹한 행위로 더욱 악화됐다. 보코하람의 지배력은 약화됐지만 이들의 반기독교적 어젠다는 인종청소, 대량학살로 규정될 정도이며, 여전히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무슬림 유목민인 하우사 풀라니족은 뜻을 같이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종교로 인한 인종청소를 자행했다. 이들은 미들벨트지역(Middle Belt region)에서 오래 거주해 온 대다수 기독교인과 아프리카 전통주의자들을 없애려 하고 있고, 남부 나이지리아 주에서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위(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o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처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땀과 눈물로써 심어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박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인도네시아 특별자치구역 아체의 한 교회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아 불에 타고 있는 자료사진. ©월드워치모니터

도 공격을 가하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일어나는 군중의 폭력은 기독교인들을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항상 위협에 노출시켰다. 외부 관찰자들은 종교적 적대감이 아닌 '사회적 불안'으로 분류하지만, 이는 실제 원인인 핍박이 사회적 충돌에 묻히거나 덮혀버리는 '핍박의 쇠퇴'(persecution eclipse)라고 오픈도어는 분석했다.

이슬람은 대다수가 기독교인인 남부 나이지리아를 이슬람화하려는 의도로 이곳에서의 정치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 무슬림 지도자들과 지지자들은 금융, 사업, 상징물, 모스크 건설, 학교, NGO 등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그 지역을 떠나거나 이슬람 관습을 받아들이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하거나 이슬람 정체성을 강요하기도 했다. 오픈도어는 "나이지리아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기독교를 억압하는 핍박의 시험 케이스로 보여진다"며 "비슷한 역학관계가 다른 나라에서도 다양한 정도와 강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 이슬람의 타종교 배척에 의한 인종청소

작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종교로 인한 인종청소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 이슬람 기관들이 기독교인에 대항하여 조성하는 역학 관계를 설명한다.

인종청소는 살인, 재산 파괴, 고문, 무차별 체포, 구금, 민간인들을 일정한 빈민지역에 가두거나 강제

이주 및 추방, 사법절차 없는 처형, 강간,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인 군사 공격 혹은 공격 협박, 대량학살 등 불법 수단을 행사하여 특정 지역에서 경쟁자나 인종, 종교가 다른 사람을 강제로 추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형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인종청소는 케냐 동북부,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수단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대량학살에 근접한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정치적 이슬람 단체의 전형적인 사회 전략의 특징은 '자발적 고립화'다. 이로써 이슬람 공동체는 과격화되고, 비무슬림들로부터 자신들의 순수함을 지키며 주변의 비무슬림 지역을 공격하는 데 도움을 얻는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슬람 지역을 떠나지 못하게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 모든 무슬림이 이 개념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러한 이슬람 공동체의 저항은 종종 제한되고 비효율적이라고 오픈도어는 설명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종교 자유의 미래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정치적 이슬람 단체의 전략으로 기독교인이 대다수인 나라들에서 이슬람과 기독교인 사이에 계층이 생겼다. 작은 지역 혹은 넓은 지역에 걸쳐 나타나는 '이슬람 계층화 운동'은 무슬림이 대다수인 지역에서 통합을 꾀하고, 국가 사법제도를 회피하는 대신 비공식적인 샤리아법정을 설치하려는 모습 등으로 나타난다. 또 기독교인이 대다수인 지역으로 확장하려고 계속 노력한다. 이는 심각한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아프리카의 많은 정부가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방관적이

거나 협조적인 정부 아래에서 가해자들은 소위 '평화를 위해' 핍박을 허용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이는 기독교인에 대한 인종청소와 대량학살로 나타날 수 있다.

◆ 기독교 박해 개선된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른 국가들

파키스탄의 박해점수는 88점에서 86점으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아주 극심한 정도다. 삶의 몇몇 부분에서 작은 개선이 있었지만, 개선됐다고 하기엔 어렵다.

나이지리아의 박해점수가 78점에서 77점으로 떨어진 것은 보코하람의 영향이 줄어든 탓이다. 안타깝게도 풀라니 무슬림 유목민들이 기독교인들의 농장을 침략하여 쟁취하는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카타르(66점→63점)와 방글라

데시(63점→58점)도 박해점수가 떨어졌다. 카타르는 무슬림 배경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과 공동체들의 상황이 개선됐다. 방글라데시는 폭력 정도가 감소하고 정부가 급진적인 이슬람 그룹들을 와해시켜 기독교인들에 대한 압박을 실제적으로 덜게 된 점이 반영됐다.

◆ 작년 박해가 개선된 국가들

대다수 기독교 박해국가에서 박해의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① 박해순위가 떨어진 탄자니아

탄자니아에서는 기독교인 상황이 가장 눈에 띄게 개선됐다. 2017년 박해점수가 59점으로 박해순위 33위를 기록했지만, 박해점수가 6점이 떨어지며 50위권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박해점수 53점은 여전히 박해 순위가 높은 것을 반영한다. 탄자니아에서는 기독교인 비율이 40%를 넘지만 이슬람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무슬림 청년들은 이웃인 소말리아, 케냐 등에서 활동하는 급진적 이슬람 그룹 알 샤바브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② 정부 혼란으로 케냐와 에티오피아의 박해 점수 하락

박해순위 32위 케냐(68→62점)와 29위 에티오피아(64점→62점)는 박해 상황이 개선된 이유가 정부의 혼란이었다. 그러나 케냐에서는 알 샤바브가 30명이 넘는 기독교인을 참수하는 방식으로 살해하여 기독교 공동체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모임을 기피하게 만들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정부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박해가 아닌, 시위자들을 강력히 처벌하여 부상, 살

해당하는 '인권 침해'가 많았다.

③ 폭력이 줄어든 시리아

2017년에 비해 박해순위가 큰 폭으로 떨어진 시리아(6위 86점→15위 76점)는 10위권에서 벗어났다. 기독교인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과 폭력 정도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는 대부분 IS(이슬람국가)가 침략한 지역들이 수복되어 10~12만 명의 난민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전의 혼란 속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7년에도 여전히 많은 시리아 기독교인이 납치되고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학대받았고 집과 고국을 떠나 도망 다녀야 했다.

◆ 17년째 1위는 북한

오픈도어 측은 "올해도 1위로 지목된 북한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박해를 피해 이동할 자유조차 없다"며 "기독교인은 곧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수사, 추적, 감시의 대상이 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기독교 박해국가"라고 밝혔다. 10대 박해국가는 북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수단, 파키스탄, 에리트레아, 리비아, 이라크, 예멘 아랍 공화국, 이란 순이다.

북한은 이번에 2위인 아프가니스탄과 비슷한 박해점수를 받았으나, 살해, 투옥, 납치, 강간 및 성적 학대, 교회나 집, 재산, 사업체에 대한 공격 등 '폭력' 부분에서 좀 더 높은 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 오픈도어는 "실제로 북한은 폭력 부분에서 수치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한국교회가 계속적으로 품고 기도해야 할 국가"라고 강조했다.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피난민 가족. ©오픈도어선교회

2018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통독 세미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의 **대하 드라마**를 보듯, **5시간**의 강의를 통하여 **성경일독**의 효과를 얻게될 것입니다.

OC 지역(제 17차):

2018년 2월 10일(토) 9:00am-4:30pm
남가주빌라델비아교회 / 714-591-7050
(214 N. Highland Ave., Fullerton, CA 92832)

밸리 지역(제 18차):

2018년 2월 17일(토) 9:00am-4:30pm
ANC 온누리교회(M800) / 818-834-7000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LA 지역(제 19차):

2018년 2월 24일(토) 9:00am-4:30pm
LA 비전교회 2층(본당) / 213-386-9191
(520 S. La Fayette Park Pl., LA, CA 90057)

접수: 8:30-9:00am
회비: \$10(점심, 다과)
교재: \$10

문의:
윤승철 집사(818-402-3391, jyun1097@yahoo.com)
김권수 목사(818-383-7926, dkkim523@gmail.com)

후원: CHTV 56.9, 크리스천 헤럴드, 국민일보
성지순례 전문 "투어 프리미어"



강사: 김권수 목사(ANC 온누리교회 성경교육 전문사역자)
DMiss(신교학 박사) 과정 중, 풀러신학교대학원
ThM(신교신학 석사), 풀러신학교대학원
MDiv(목회학 석사), 웨드민스터대학
연세대학교원 전기공학과 중퇴(도미)

ANC 온누리교회는
올해로 창립 22주년을 맞이한
CRC 교단 소속교회이며
LA 선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복음으로 이웃에게
OVERFLOW: MORE GOSPEL IN OUR NEIGHBORHOODS

LA 영혼의 샘 Holy Spirit Conference 성령 컨퍼런스

Spiritual Revolution 영성혁명을 통해
Ways of Zion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Blessing of Prosperity 형통의 축복을 받자!

“근본적인 치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성령으로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누리는 영성혁명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집회일정 12차 | 2018/1/16/화 - 2/3/토 (주일은 집회가 없습니다)

집회 시간 - 저녁 7시 30분

문의전화 424 375 0725 / 213 245 6616

집회장소 3251 W. 6th St. Suite B1 Los Angeles, CA 90020

로스엔젤레스 **백송교회**

YouTube 유튜브에서
"이순희 목사"를
검색해보세요!

백송 다니엘 기도회 하루 세 번

새벽 5:30 | 오전 11:00 | 저녁 7:30

제 3회 | 2018/5/21/월 - 6/10/주일

집회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봉덕삼현길 191 **보령 백송 수양관**



강사 **이순희** 목사

백송교회 담임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 회장
백송영성수련원 원장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서울신학대학원 M.Div 졸업
전세계 찬양치유 부흥사
각종 세미나 강사

인천 가족치유
평절대 부흥성회 오전 11:00 | 저녁 7:30
2018. 2. 12 (월) 저녁 - 2018. 2. 16 (목)

인천 영혼의 샘 Holy Spirit Conference
성령 컨퍼런스 오전 11:00 | 저녁 7:30
53차 | 2018. 2. 19 (월) 저녁 - 2018. 2. 24 (토) 오전

변화

시기, 미움, 원망, 교만 등 내적 치유로
예수를 닮는 성품으로 변화,
열매 맺는 삶으로의 변화와 성숙

치유

알코올/컴퓨터 각종 중독에서 자유,
기억상실증, 우울증, 공황장애 및
정신질환, 각종 암 등 영육의 질병 치유

기적

찬양, 설교 등의 훈련과
방언, 진동, 신유 및 갖가지 은사 체험,
축구사역, 영적전쟁의 체험적 이해

방향하는 영혼들의 쉼터
영혼의 샘
지부 안내

해외지부

• 캐나다 토론토 백송교회 | 647 637 4013
11 Glen Cameron Rd. Thornhill. ON L3T 4N3

• 미국 로스엔젤레스 백송교회 | 213 245 6616
3251 W. 6th St. Suite B1 Los Angeles, CA 90020

한국

• 인천본부 | 032 469 0191, 032 323 12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231번길 20

• 보령 백송 수양관 | 010 2839 9501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봉덕삼현길 191

• 대구지부 | 053 644 0175
대구광역시 월배로 32안길 61 B1